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

노상래**

〈차 례〉

1. 서론-국가적 도덕은 정당한가
2. '조선과 만주는 한 집안'론과 차별 철폐 문제
3. 「유맹」에 대한 오해 세 가지
4. 안과 밖의 서사 : 유랑민(流氓)의 안주와 결핍 서사
5. 결론

【국문초록】

현경준의 「유맹」은 집단부락인 보도소를 중심으로 만주국이 시행한 범죄인 개조프로젝트를 서사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저항과 협력이라는 시선으로 자주 다루어지곤 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인 보도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명우와 규선의 서사를 중심으로 제3지대의 공간 지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설은 명우를 중심으로 한 개조프로젝트가 일정 부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명우의 초점 속에 드리워진 상징코드가 있

* 이 논문은 2013년도 영남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데, 그것은 ‘규선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소 <안>과 <밖>으로 나누어진 공간에 대한 평가는 거주 공간의 차이에 따라 평가는 갈린다. <밖>의 사람들은 <안>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질타하지만 <안>의 사람들에게는 <밖>의 사람들도 <안>의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범죄인으로 규정된다. ‘규선류’들에게 <안>과 <밖>은 구분되지 않는다. 등질의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안>의 사람들은 안주를 위해 <밖>으로 탈주하려 하지 않는다. <안>과 <밖>의 공간이 아닌 제3지대를 꿈꾼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옛꿈’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 규정이나 규율은 ‘낙오된 폐인’을 통제하기에 버겁다. 그들은 집단부락의 감시와 규율에 의해 통제받지만, 스스로 그 통제 바깥에 놓여 있다. 규율은 그들을 강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규율은 자주 미끄러진다. 왕도낙토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었고, 형체가 일그러져 보이는 깨진 거울이었다. 현경준이 고발하려는 것은 개심자 ‘명우’의 시선에 가려진 바로 이 미끄러짐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제어: 내선일체, 보도소, 오족협화, 왕도낙토, 집단부락, 헤테로토피아

1. 서론-국가적 도덕은 정당한가

미셸 푸코의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개념에 잘 나타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으로 유토피아가 언어로 이루어진 질서의 공간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비언어의 장소이며 무질서의 공간, 일상적인 삶의 공간과는 이질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은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이자 반(反)-공

간"이기도 한데, "사회의 정상적 일상적 공간에 반하는 공간, 그것들을 지워버리는 공간,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머무르는 공간, 혹은 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속하는 공간"이다.[1] 이를 대표하는 공간으로는 수용소, 감옥, 병원, 학교, 공장, 병영 등이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현경준의 소설 「유맹」에 등장하는 보도소는 갱생의 공간, 정화의식이 치러지는 격리의 공간, 개방을 전제하지만 실제로는 폐쇄된 환상의 공간으로서 푸코가 말하는 헤테로토피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유맹」을 통해 현경준이 기획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역사적 사실의 담론 생성과 배치는 때론 의도적이다. 기획된 의도에 의해 담론은 어떤 사실을 배제하거나 뒤섞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섬세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소설도 비록 허구라는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 식민지적 상황에서 국가라는 이름이 거세된 백성에게 남는 것은 민족이겠지만 그마저도 감시와 처벌에 종속된다. 특수성으로 구성된 세계가 있고 그것을 향유하는 제국이 있다. 흔히 제국은 특정국가와 민족을 괄호 속에 봉인한 채 자연인인 인간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식민자의 잔혹한 포식성을 발톱 밑에 감추기 위함이다. 봉인된 괄호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시스템에 의해 선택의 부재를 강요당하는 경우 <식민지의 백성>은 철저히 낮아지거나 비굴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각 위해가 가해진다.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는 '국가적 도덕은 개인적 도덕에 비하면 수준이 훨씬 낮은 것'[2]이라고 갈파한 적이 있다. 국가(천황)를

---

1) 허경,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연구』 3권 2호, 2011, pp. 242-243.

2) 柄谷行人, 『倫理21』, 東京 : 平凡社, 2000, p. 83.

위해 죽는 것이 숭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때, 나츠메 소세키는 국가는 고매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개인보다 낮은 도덕을 가진 국가는 공공성을 앞세워 도덕적 우위를 도모한다. 물론 사람들은 어딘가의 국가나 문화에 속해 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괄호에 넣을' 수는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세계시민임을 천명한다.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코스모폴리탄이고, 그런 한에서 세계시민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일러 칸트는 '공공(public)'이라고 했다.[3]

그런데 종종 이 공공은 제한된 '공통감각'-이를 공감이라고 불러도 좋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 불릴 때가 있다. 그럴 경우 타자의 감정은 무시된다. 타자는 공통감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대화도 배제되고 '주관적=독단적 태도'[4]만 남게 되며, 이는 칸트가 말한 "세계시민적=공공적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5] 이처럼 제한된 감각을 유지하면서 제국이 독점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흔히 쓰는 전략이 규율을 포함하는 감시와 처벌이다.

규율은 개개인의 힘과 능력을 규합시킬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가령 군인이 얼마나 용기와 힘을 지닌 존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전체적 전략 속에서 부과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엄격한 지휘와 감독체제 아래 개개인의 힘과 능력을 권력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야 한다.[6]

규율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개체화되어 가고 거대한 메커니즘의 부속품처럼 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규율은 인간의 육체를 통제하면서 동시에 개별자로 만든다. 개인이 제

---

3) 위의 책, p. 85.
4) 위의 책, p. 92.
5) 위의 책, p. 92.
6)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0, p. 13.

조되는 방법은 규율 엄수와 징계, 감독과 제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권력은 이러한 방식으로 가시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횡포와 전제성을 은폐하면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자기 모습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파놉티콘 같은 일망감시장치의 구조를 통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었다. 육체적으로 잔인하게 처벌하는 방법보다 감시하는 방법에 의존한 권력의 전략으로 인간의 육체는 규율에 길들여진 것이다.[7]

하지만 감시만으로 규율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것은 제국의 흔한 수법이다. 죄인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죄질에 따라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백의 강요는 필수적이다. 자백은 고문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진실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고 또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8]

하지만 감시와 처벌을 동원하여 특정 권력이 모든 개인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권력이 목표로 하는 어떤 수준에 완벽하게 도달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항상 저항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경준의 「유맹」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동안 「유맹」은 상반되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나는 국책에 순응한 작품이라는 시선이다. 예를 들면 "만주국 이념인 왕도낙토사상이 관동군의 괴뢰정부인 만주국의 이념이란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9]이라거나 "만주국국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선전문학"[10], "다분히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호응하는 성향"의 작품[11],

---

7) 위의 책, p. 14.
8) 위의 책, p. 10.
9)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2004, p. 635.
10) 김윤식, 『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p. 443.

‘만주국의 국책수행에 따르면서 그 국책을 찬양하고 있는 작품’[12], ‘만주국의 아편금단정책을 다룬 금연문예’[13] ‘부패한 현실 속에서 부식되고 타락된 인간들의 내심세계를 깊이 파헤치고 재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편달한’ 작품[14], “아편의 해독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두드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파괴적인 아편에 빠져들고 밀매업에 나서게 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어느 정도 해부해 보여주고 있는”[15] 작품이라는 평가 등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의 비극적 삶을 그리려 한 작품 혹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만주의 정책을 비판하려 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다. “만주에서 유랑하는 민족의 비극적 삶과 거기에서 좌절하고 아편 중독자가 되어 버린 사실을 보고형식으로 기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리얼리즘소설”[16], “중심문학-국책문학에 의뢰하면서도 이탈하는 이중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위시하여[17], “만주국 재현 서사가 처한 딜레마의 지점을 근본적으로 제기”[18]하였다거나, 「유맹」을 국책선전이라는 논의로 보는 것이 아닌, 식민주의

---

11) 이명재, 「식민지시대 망명문단에 관한 연구 - 광복 이전의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17집, 1990, p. 81.

12) 전성호, 「일제하 중국 조선인 소설 연구」, 강원대 석사 논문, 1998, p. 84.

13) 이선옥,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 갈등과 친일의 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p. 105.

14) 일철 등, 「중국 조선민족의 해방전 소설문학에 대하여」,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2』, 민족출판사, 1977, p. 11.

15) 남춘애, 「해방 전 중국 유이민 소설에 나타난 아편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7호, 2007, p. 413.

16)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17집, 2002, p. 210.

17) 김장선, 「위만주국 문학장에서의 변두리문학의 이중성 연구 - 「돌아오는 인생」과 「신생」을 중심으로」, 용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논총』 11집, 2004, p. 188.

18) 서은주, 「만주국 재현 서사의 딜레마 혹은 해석의 난경」,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22집, 2010, p. 256.

담론의 영향에 따른 작가의 이중적인 의식구조로 보려 하고[19], "우회적 글쓰기의 한 방법으로 당시 '왕도낙토'를 선전하던 위만주국의 선전을 전복"[20]시키려 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고 "친일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의 정황 속에서 현실과의 긴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지식인의 태도를 강조하려고 했던 우회적 글쓰기"[21]라거나, "표면화된 서술 속에 작가의 민족적인 저항의지가 은폐되어 있는, 만주국시책에 부응하는 친일성격을 띠지 않은 문학"[22], "엄혹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와 검열권력에 맞선 작가의 치열한 저항의식의 소산"[23]"현실의 암흑과 묘연한 미래 때문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인테리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24] 밝히려 한 작품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논문은 「유맹」이 왕도낙토를 표방한 만주국에서 그들이 설정한 세계인-오족협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주국이었으니 그 국민이 되는 순간 코스모폴리탄의 성격이 부여되는-으로 소위 '범죄인'을 개조하려 한 고귀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져가는 왕도낙토와 몰락하는 개인, 그리고 환상에 그치고 마는 '유맹' 개조프로젝트를 통해 '영원의 저주'를 발견해낸 그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잘못된 서지 정보의 오류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것도 이 논문의 동기이다. 특히 「유맹」에는 저항과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시각

---

19) 신정은, 「현경준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과 대응양상 연구」, 국제한인문학회, 『국제한인문학연구』 8집, 2011, p. 116.

20)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 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연구』 36집, 2008, p. 90, p. 106.

21) 김재용,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p. 56.

22) 오상순, 『중국조선족소설사』, 료녕민족출판사, 2000, p. 108.

23) 표언복,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글쓰기 방법」,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47집, 2011, p. 366.

24) 장춘식, 『일제강점기 재중조선인소설연구』, 전북대 박사, 2003, p. 120.

으로 접근하면 해명할 수 없는 제3의 지점이 있다.[25] 지경의 확장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경준의 「유맹」은 그런 점에서 만주서사를 새롭게 읽을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2. '조선과 만주는 한 집안'론과 차별 철폐 문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곤도(近藤) 비서관'을 위시하여 일행 9명을 거느리고 1941년 4월 9일 오후 3시 50분 '노조미'를 타고 만주국 수도 신경을 향해 경성역을 출발한다. 조선총독 자격으로 만주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나미가 처음이었다. 사실 미나미 총독과 만주는 깊은 인연이 있다. 만주국이 건국될 당시 미나미는 육군대신 자격으로 일조하였으며, 만주국이 건설된 직후에는 관동군 사령관 자격으로 신경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만주국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그런 그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이래 6년이 지나서야 총독 자격으로 만주국을 방문한 표면적 이유는 불거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즉 한 가지는 압녹강을 중간에 놓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과 또는 이것을 중심으로 만주국과 조선측에서 어업을 하는 문제, 둘째는 만주로 가는 조선인 개척민 문제, 셋째는 만주에 가 있는 조선동포 1백 20만 명 중 60만 명은 조선에 호적을 갓지안은 무적자(無籍者)의 문제와 그 이외의 교육문제"[26] 등을 시

25) 최근 이런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한 논문들이 있다.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 현경준의 <유맹>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사이間SAI』 4호, 2008. 5, pp. 263-289.; 이영미, 「재만조선인의 이주와 정주 과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31집, 2009, pp. 57-91.; 차성연,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 53집, 2009, pp. 437-456.; 서은주, 앞의 논문, pp. 231-263.; 차희정, 「현경준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과 공간의 의미: <流氓>, <도라오는人生>, <마음의琴線>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40, 2013, pp. 21-45 등이다.

급히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나미 총독의 만주 방문이 부임한 지 6년이나 지나, 태평양전쟁 발발 8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주지하듯이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확전의 와중에 일제가 시행한 지원병제도(1938. 2), 조선교육령개정[27](1938. 3), 창씨개명(1940. 2)은 몸과 그림자의 관계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다.[28] 이런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가급적 빨리 황국신민으로서 천황을 도와 받들 정신적 존재로 만드는 것"[29], 즉 조선민족의 완전한 황국신민화에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의 마지막 완성은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 완성의 길은 징병제 실시[30]를 통해 활짝 열릴 것이다.

미나미는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2대 통치 목표를 세웠다. 그것은 천황이 '교코(行幸)[31]할 수 있는 반도'와 '징병이 실시될 수 있는 인심'을 조성하는 것이었다.[32] 미나미의 만주국 방문이 징병제와

---

26) 이정순, 「조선과 만주는 한 집안 - 남총독 만주국 방문기」, 『新時代』 제6집, 1941. 5, p. 26.

27) 조선교육령 개정은 "鮮人을 병역의무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皇魂的 교육시설을 철저히 완비하는 것이 국방상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라는 조선군사령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宮田節子 저, 이형랑 역,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p. 65.

28) 이들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宮田節子의 위의 책에 잘 나타나 있다.

29) 極秘, 「朝鮮人志願兵制度ニ關スル意見」, 朝鮮軍司令部, 1937. 6, p. 3. 宮田節子, 앞의 책, p. 56 재인용.

30) 징병제는 1942년 5월 8일 각의를 통과하여 9일에 공포된다. 그리고 1944년 4월부터 8월에 걸쳐 징병검사가 시작되고 9월부터 입영이 시작된다.

31) 교코(行幸)는 천황의 행차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32) 御手洗辰雄, 『南次郎』, 東京: 南次郎傳記刊行會, 1957, p. 435. 미나미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1937년 1월에 5대 정강, 즉 '國體明徵, 鮮滿一如, 敎學振作, 農工竝進, 庶政刷新'을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 pp. 435~457을 참조할 것.

맞물려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나미의 이런 생각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구체화되어 갔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육군은 1940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할 생각이다"[33]라는 군령부의 사토 다케시(佐藤毅) 중령의 기록을 보더라도 미나미가 구상하고 있던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는 물밑에서 은밀하게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인의 징병은 수원(水源) 확보 차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대륙의 최전선인 만주에서도 이루어져야 했고,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절실히 필요했다.

만주국의 방문이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만주국에서 보여준 미나미 총독의 행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선만일여란 말의 창시자인 미나미는 '선만일여(鮮滿一如)의 큰 이상을 하루바삐 실천하자'[34]라는 목표 아래 '관동군의 매진(梅津) 사령관과 만주국의 장경혜(張景惠) 국무총리대신 무부(武部) 만주국 국무원총무장관과 만나서'[35] 하나 같이 강조한 것은 조선인을 '충량한 제국 신민으로서 선량한 만주국 인민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회담 결과로 얻어진 내용을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에서 4월 22일 동시에 발표한다.[36]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발표 내용을 도출하는 과정에 간여한 주체이다. 조선은 당연히 총독 미나미이지만 만주국의 경우 국무총리대신 장경혜나 국무원총무장관 무부가 아니라 관동군 사령관 우메즈(梅津)였다. 회담내용을 공표하기 위해 만주국

33) 宮田節子, 앞의 책, p. 132.
34) 이정순, 앞의 글, p. 24.
35) 위의 글, p. 26.
36) '선만일여강화조장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회담내용은 기본요강, 지도요강, 실시방책 세 항으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 pp. 28-29를 참조할 것.

에서는 국무원회의를 거치긴 하나 형식적이었다. 회담내용은 '남·매진회담'[37]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이것은 '위(僞)'만주국의 정치적 위상을 상징하는 코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선만일여'라는 구호 속에 숨겨진 어떤 정치적 내용은 우메즈 <사령관과만> 협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글에서 기자가 특히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저의를 눈치 챌 수 있다.

> 이상과 가치 남총독과 매진군사령관과의 회담내용을 발표하였거니와 이 중에 제일 골자되는 것은 선만일여의 지도요강 중 (2)와 (3)이다. 즉 (2)에 있어서는 조선에서 부르짖는 「내선일체」를 만주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양해하고 여기에 절대한 협력을 함으로 (3)에서 말한 바 호적을 가진 재만주조선인을 충량한 황국신민이라는 본질을 기초로 하야 선량한 만주국인민이 되도록 교양을 가지게 하고 지도를 가지게 하사……[38]

여기서 거듭 강조되는 것은 '내선일체'에 바탕한 재만조선인의 '충량한 황국신민' 만들기이다. 선만일여라는 목표가 더 빛나기 위해서는 재만조선인을 '일덕일심의 건국정신'에 바탕한 만주국의 선량한 <신민>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되는 목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 협의 내용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는 재빨리 '진기(眞崎) 학무국장' 일행을 5월 5일자로 만주에 파견하여 교육시찰을 하게하며, '60만명의 무적자(無籍者)에게 대하여는 곧 취적을 하도록 3개년간 계획으로 전부 취적수속을 시켜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총독부에서 30여명을 만주국으로 파견하여 사무를 전담하도록 조치하였다.[39] 미나미, 나아가 일제의 속셈은 '내선일체를 근본으로 만주국에서도 다시 조선동포를 황국신민으로서 취

37) 이 용어는 p. 28과 p. 29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8) 위의 글, p. 29.
39) 위의 글, p. 29.

급'하겠다는 것이다. 만주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만주국민이 아니라 '황국신민'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은 오족협화론에 스스로 균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국적 조선인을 일본국적으로 편입시키면서 만주국 조선인을 <명예로운> 황국신민으로 거듭 호명하려는 저의는 분명하다. 곧 시행하게 될 조선인 징병제에 따라 징병될 수원(水源)을 충분히 확보하여 만주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도 징병 대상으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균열을 외면한 채 차별 철폐에 의한 징병에 있어서의 조선인의 무차별평등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선만일여와 관련하여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있다. 1936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니미가 만주통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만주경영과 조선경영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의 안정과 만주의 안정은 직결되어 있었고, 이런 입장을 잘 아는 미나미가 선만일여를 조선 통치를 위한 강령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은 당시 일제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스란히 수렴한 결과였다. 1936년 8월 5일에 부임한 미나미 총독이 그해 10월, 부임한 지 2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 관동군 사령관을 만나(1936. 10.29) 회견을 한다. 구체적 회견 내용은 '만선일여문제, 공비(共匪)문제, 쌀 문제'[40] 등이었다. 그리고 1939년 12월 12일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관동군 사령관이 경성을 방문하는데 이때 미나미는 환영 인사말을 통해 "만

40) 유필규, 「1930~40년대 연변지역 한인 '集團部落'의 성격」, 백산학회, 『백산학보』 81, 2008, p. 376.
미나미 지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만일여 혹은 만선일여 정책은 조선인과 만주인 사이의 위계질서 문제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해, 미나미 지로가 "선만일여는 조선 쪽의 짝사랑 같은 감이 든다"는 고백을 할 정도였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성모의 논문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회, 『역사학보』 201, 2009, pp. 165-199를 참조할 것.

주는 일만일체(日滿一體)의 국시에 기(基)하여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지도정신으로써 대륙경영의 기초로 할 것”을 일찍이 통감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41] 즉 선만일여는 일본의 만주 경영에 있어 중요한 방책이었고, 그리고 선만일여 정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방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만일여 정책은 “만주와 조선을 유기적 체제로 묶어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논리”[42]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제국 일본의 충량한 신민만들기에 있었다. 선만일여와 내선일체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차 의사(pseudo)일본인인 조선인을 징용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리고 현경준의 「유맹」에 등장하는 집단부락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만주에 사는 주민 가운데 아편중독자 등도 포함하는 부정업자 숙정공작에 따라 간도에서 延吉·汪淸·和龍 등 3현의 반도인 부정업자 가운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2백여명을 귀농시켜 갱생의 길을 도모하도록” 만든 ‘이상적 집단부락’[43]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건저내서 바른 국민을 맨들려고’[44] 한 저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내몰단 한 명의 용사라도 절실했던 것이다.

한편, 미나미는 1937년 4월 각급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버린다. 이는 황민화 정책의 제일이 ‘국체명징, 내선일체, 국어교육, 실업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대쇄신의 단행’[45]이라고 판단한 미나미의 입장에서는 시기의 문제였지 자연스러운 조치였다. 하지만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비애의 정점은 모국어 상

41) 「梅津關東軍司令官 南總督과 重要會談」, 『동아일보』, 1939. 12. 14.

42) 유필규, 앞의 논문, p. 376.

43) 「何不自由なき設備に大喜びの歸還者達, “獻身努力更生の道を拓く”と - 滿鮮拓の大梨樹溝集團部落」, 『間島新報』, 1937. 11. 20.

44) 현경준, 「유맹」, 『인문평론』, 1940. 7, p. 123.

45) 御手洗辰雄, 「東亞共榮圈に於ける朝鮮の地位と實力」, 『新時代』, 1941. 6, p. 116.

실과 창씨개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뿌리를 통째로 전복시키는 참화였기 때문이다. 동화와 우민화정책을 기저에 깔고 있던 일본어정책은 피식민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화되어 갔다. 그들에게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의 안착을 위한 상수였기 때문이다. 문부성에서 오랫동안 일본어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구기모토 히사하루(釘本久春)는 "이민족에 대한 일본어 교육 내지 이민족 사회에 대한 일본어의 보급·침투라는 사업이 우리나라의 대외 문화 활동, 이른바 문화공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46]라고 말한 바 있다. 언어교육이 식민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화공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제는 숨기지 않았다. 심지어 "대동아전쟁의 실체는 사상전이다. 사상전의 첨병은 언어이다. 또 그 후진도 언어이다"[47]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기에 접어들면 일제는 소통 도구로서의 언어에다 국체, 황도정신, 일본정신 같은 정치·군사적 이데올로기까지 덧칠하여 언어의 의미를 더해간다. 이처럼 일제에게 언어교육은 황민화정책의 핵심이었으며, 그들에게 언어는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만주국이 건국된 후 일본어 우선의 언어정책이 실시되긴 하지만 만주에서의 '국어' 정책은 일본의 여타 식민지와는 달랐다. 조선에서 1938년 일본어 상용, 조선어 교육 폐지가 시행되고, 대만에서 1937년에 한자 사용 금지가 시행된 것과는 달리 만주에서는 형식상 '복수국어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만주국이 건국되기 전의 '재만(在滿) 제(諸)민족의 모어 존중'이라는 슬로건 때문이었다. 일제의 위성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적법이 없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갖지 못한 만주국이었기 때문에 일제 또한 일본어만을 '국

46) 釘本久春, 「日本語教育の基礎」, 三谷裕美, 「滿洲國における'國語'政策」, 『東京女子大學 論集』, 1963. 3, p. 100 재인용.

47) 西尾實, 「日本語總力戰體制の樹立」, 『日本語』 3권 1호, 1943. 1, p. 20.

어'로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언어 문제에 관한 한 만주국에서는 태생적으로 균열이 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맹」에서 알 수 있듯이 굳이 조선인만을 위한 집단부락을 따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집단부락에 오족이 함께 수용될 경우 일본어나 조선어만을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선일체론에 기반하여 조선인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싶었던 속셈은 언어문제가 저류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군대의 경우 다민족군대라 할지라도 언어의 통일은 절대 필요했을 터이니까.

이런 균열은 교육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35년 5월 17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인에 대한 만주에서의 치외법권을 철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48] 그리고 8월 10일 '치외법권철폐 및 남만주철도부속지행정권의 위양'에 관한 안건이 각의에 상정되어 정식으로 통과된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만주국에서 일본의 치외법권에 관하여는 종래 조약 등의 정신에 칙(則)하야 만주국의 제도 급 시설의 정비에 대응하야 취중(就中) 재류일본신민의 생활에 급격한 변동을 주지 안흘 일, 만주국의 전 영역에서 일본신민의 안전발전을 일층 확보할 일, 급 만주국에서 일본의 국책 수행을 원활케 하는 것에 대하야 특히 고려하고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
> 2. 남만주 철도 부속지 그것은 의연 일본이 보유할 것은 물론이나 당해 지역에 행사하는 일본의 행정권에 관하여는 점차 치외법권 철폐와의 연관으로 보아서 만주국의 제도 급 시설에 대하야 전항과 동양의 고려하에 치외법권의 점진적 철폐와 보조를 합하야 각 사항의 성질에 응하야 조정 급 위양하는 것으로 함.[49]

---

48) 「만주치외법권철폐대강 외무성 발표」, 『조선중앙일보』 1935. 5. 18.

49) 「만주의 치외법권 일본, 폐지를 정식 결정」, 『동아일보』 1935. 8. 10.

그리고 1937년 11월 5일 신경(新京)에서 이와 관련한 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발표된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신사(神社)행정권(14조), 일본인 자제의 교육에 관한 교육행정권(15조)과 병사행정권(16조) 등 "일본인의 정신상 군사상의 근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도 만주국에 위탁되지 않았다."[50]

그러나 문제는 재만 조선인의 처우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일본인 교육에 관한 「교육행정 처리요강」과는 별도로 만주국치외법권철폐현지위원회는 「재만조선인 교육행정요강」을 결정하게 되는데 '재만조선인 자제에 대한 교육은 치외법권 철폐와 함께 만철 부속지 행정권 이양에 수반해, 별기 교육 요령에 근거하여 만주국측에 이관함'[51]이라고 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치외법권의 경우에도 차별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는 조선인의 교육문제는 단순히 교육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만조선인의 지위 즉 장래 그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별해서 심의하는 것은 조선 통치상 문제가 발생할 것'[52]이라면서 조선총독부의 이름으로 분명한 반대를 표명한다. 다나카의 반대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공식 입장이고, 따라서 그것은 곧 미나미 총독의 정책방침을 옮겨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인에 대한 미나미의 애정은 특별했다. 그의 특별한 애정은 다음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만주에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다 같이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동

50) 副島昭一,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東京: 綠蔭書房, 1995, p. 151.

51) 田中隆一, 앞의 논문, p. 92.

52) 위의 논문, p. 93.

> 시에 만주 건국의 민족협화 취지에 의거하여 만주국의 인민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조선인의 신분 결정의 기초이다. 곧 한인(漢人)·몽고인·만주인은 만주국의 신민이다. 그러나 일본인이 만주국의 관리가 되고 주민이 되더라도 만주국의 신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 만주국의 인민인 것이다. 만주인·몽고인·한인 또는 백계 러시아인도 있는데 이들 민족은 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니다. 만주국의 신민인 것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만주국의 신민이 아니다. 만주국에 근무하고, 종사하고, 생활하더라도 만주국의 인민이다. 이로써 내선일체의 근본 취지는 만주국에서도 확립되었다.[53]

미나미는 재만조선인을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며 동시에 '만주국의 인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선만일여의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그러나 만·몽·한인(漢人) 및 백계 러시아인은 '만주국의 신민'일지언정 '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니며 '일본인과 조선인은 만주국의 신민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천명함으로써 재만조선인의 국적을 가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미나미의 이런 천명에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내선일체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음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은 "치외법권이 철폐된 된 후 재만조선인의 교육은 만철부속지의 14개교를 제외하고는 만주국에 이관되어 만주국 학제에 의해 운영된 것"[54]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제국신민>으로서 영사재판권, 영사경찰권, 토지조상권 등 치외법권을 향유"[55]했던 조선인의 권익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런 결정은 재만조선인들, 특히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라는 구호를 믿은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한 차별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였다. 내선일체가 오족협화에 자리를 내준 꼴이다. 물론 내선일

---

53) 南次郎, 「聯盟本來の使命-議論よりも實行へ」, 『總動員』 1권 2호, 1939. 7, pp. 49-50.

54) 김경일 외, 앞의 글, p. 227.

55) 田中隆一, 앞의 논문, p. 104.

체와 오족협화는 천황파시즘의 대외적 정책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제의 시각에서 보면 굳이 경중을 따질 필요는 없을 법하다. 그러나 재만조선인에게 있어서 내선일체는 오족협화 논리보다는 더 중요한 일제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선일체는 조선인의 지위 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내선일체를 표방할 경우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일등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오족협화론에 근거하면 조선인은 만주국에서 협력해야 할 여타 민족 중 하나의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독부는 필요에 의해서 조선인에게 '동화'를 요구했지만, '내선인 사이에 상이한 방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차별은 당연시 되었다. 동화는 차별을 전제하고 있었다. '만주국 내 조선인은 지배 민족인 일본인과 피지배 민족인 중국인 사이의 2등국(공)민'으로 <대접>받았지만 이는 '황국국민이라는 명목 하에 조선인을 대륙 침략 정책에 이용'[56]하려는 의도된 위계질서였지 그것이 곧 차별철폐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결국 만주국은 "조선인에게 있어 제국의 신민이고 준일본국민이란 상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면서 "제국주의의 피지배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제국의 힘을 뒤에 업고 타자의 삶을 위협하는 가해자의 입장"[57]에 놓일 수도 있는 회색공간이었다. 하지만 "<오

56) 윤휘탁, 「<만주국>의 '2등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회, 『역사학보』 169집, 2001, pp. 141-142.

57) 윤휘탁, 「'만주국'」 농촌의 사회상 - '복합민족구성체'의 시각에서 본 식민지 농촌의 단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호, 2004, p. 229. 대만에서의 이런 미끄러짐은 신민영, 「타이완 소설 「道」에 나타난 이중 억압 기제와 식민지인의 자기 정체성 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9호, 2013, pp. 319-346을 참조할 것.

족협화>를 표방하면서, 한인과 일본인을 구별해, 한인을 <만주국국민>으로서 육성하려고 했던 만주국과, <내선일체>의 원칙 아래, 한인을 <일본제국신민>으로서 육성하려고 했던 조선총독부의 대립을 통해서, 재만한인 문제를 둘러싼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난맥상"[58]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만, 조선인에게는 형극(荊棘)의 공간이었다. 결국 만주는 일상적인 혹은 정상적인 공간의 무늬를 띄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질적 공간이며, 한계의 바깥에 자리하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었다. 바로 그 공간에 「유맹」의 집단부락(보도소)이 자리하고 있다.

3. 「유맹」에 대한 오해 세 가지

기왕의 「유맹」과 관련된 논의들에서 보이는 서지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그것은 첫째, 발표 시기, 둘째, 『광업조선』과 『인문평론』 발표작의 동일성 여부, 셋째, 현경준이 방문 후 보고문 형식으로 집필했다고 밝힌 「유맹」의 공간배경인 '대리수구집단부락(大梨樹溝集團部落)'의 실재 여부이다.

우선, 발표 시기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들에서 「유맹」의 발표 시기를 언급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유맹」이라고 하면 대개 『인문평론』(1940.7~8)[59]"
② "「유맹」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39년 『인문평론』 7월과 8월호"[60]
③ "본 작품은 昭和15년 5월 중 집필, 동년 7, 8월 중 인문평론에

58) 田中隆一, 「日帝の「滿洲國」統治と 在滿韓人問題 : 「五族協和」と「內鮮一体」の相剋」, 만주학회, 『만주연구』 1, 2004, p. 104.
59) 서은주, 앞의 논문, p. 247.
60) 조진기, 앞의 논문, p. 209.

발표”[61]

④ “「유맹」을 처음『광업조선』1939년 3월호에 발표한 후『인문평론』(1940년 7-8월호)과 재만 조선인 작품집『싹트는 대지』(1941)에 같은 표제로 수정 없이 재수록”[62]

⑤ “「유맹」은『광업조선』1939년 3호에 처음 발표되었고『인문평론』1940년 7-8호에「유맹」이라는 표제로 다시 게재”[63]

⑥ “《류맹》1939. 2.”[64]

⑦ “『광업조선』1939년 3월호에 발표”[65]

위의 사례들에서 드러나듯, 특수한 경우(‘1939년『인문평론』7월과 8월호’와 ‘1939. 2.’)를 제외하면「유맹」의 발표 시기는 1939년 3월설과 1940년 7~8월설로 압축된다. 하지만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단 1939년설은 맞지 않다. 따라서 ‘대리수구 집단부락’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유맹」의 발표 시기는 ‘1940년 7~8월’이 맞다.「유맹」은 ‘‘庚辰五月于圖們’[66] 즉, 1940년 5월에 도문에서 집필되어, 그해 7~8월 2회에 걸쳐『인문평론』에 게재되었다.

둘째,『광업조선』과『인문평론』발표작의 동일성 여부 문제이다. 지금까지 일부 학자들은『광업조선』에 실린「유맹」과『인문평론』에 실린「유맹」이 동일 작품임을 전재로 논의를 전개한 경우가 있다. 리광일[67], 오상순[68], 장춘식[69], 차광수[70] 등이 대표적인 사례

61) 신영철 편,『싹트는 대지』, 만선일보사출판부, 1941, p. 162.

62) 오상순, 앞의 논문, p. 88.

63) 장춘식, 앞의 논문, p. 118.

64) 리광일,「현경준의 소설문학에 대한 리해」,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허경진 · 허휘훈 · 채미화 주편,『현경준, 연세국학총서 73 -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9』, 보고사, 2006, p. 26.

65)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허경진 · 허휘훈 · 채미화 주편,『현경준, 연세국학총서 73-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9』, 보고사, 2006, p. 414.

66)『인문평론』8월호, p. 171.

67) 리광일, 앞의 글, p. 26.

이다. 특히 차광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유맹」은 이미 『광업조선』 3월호에 발표된 시점이다. 「유맹」이 미완 작품이 아니었다면 그해(1939년: 인용자) 8월에 **재차** 그 부정업자부락을 방문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이 **방문은 제2회의 보고,** 즉 소설을 장편으로 늘이겠다는 작의에 의한 방문으로 추정될 수 있다.[71]

그런데 이경훈은 『광업조선』의 「유맹」을 최초로 분석하여 그동안의 연구가 지닌 서지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이후의 소설과는 "전혀 다른 작품"임을 밝힌 바 있다.[72] 필자도 『광업조선』판을 구해서 살펴본 결과 『인문평론』판 「유맹」과 전혀 다른 작품이었다. 총 24쪽(65~88쪽) 분량의 이 소설은 국경도시 도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조선인 '유맹'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주로 밀수와 아편, 그리고 동족에의 사기 등의 에피소드를 주인공 '병구'를 중심으로 '영도' '금천집' '순길' '복순' '김서방' 등이 펼쳐 보이고 있다. 『인문평론』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나 서사가 판이하다. 아마도 '유맹'이라는 동일한 제목에서 연유된 오류일 것이다. 그리고 차광수는 "『광업조선』 1939. 3월호 소재 「유맹」의 '작자의 말'에 "작자는 이것을 제1회로 하고 앞으로 몇 차례고 이 부락의 소생 상황을 보고하려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73]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광업조선』판에는 '작자의 말'

---

68) 오상순, 앞의 논문, p. 88.

69) 장춘식, 앞의 논문, p. 118.

70) 차광수,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7집, 2005, p. 407.

71) 차광수, 『현경준연구』, 한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p. 97.

72) 이경훈, 앞의 논문, p. 270.

이 없다.

따라서 차광수가 위의 인용에서 주장하는 1939년 11월호『문장』에 실린「중독자의 말」에 기록된 1939년 8월 13일의 집단부락 '대리수구' 방문은 '재차' 방문이 아니고 첫 방문인 셈이며, 그 방문을 토대로 하여 쓴 작품이『인문평론』판「유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회의 보고'가 아니라 첫 보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리수구집단부락(大梨樹溝集團部落)'의 실재 여부 문제이다. 차광수는 손방의『위만사료총서 - 경제약탈』을 참조하여 '대리수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마을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74] 그리고 이영미[75]와 서은주[76]도 차광수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간도신보』(1937. 11. 20)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전에 만주에 사는 주민 가운데 아편중독자 등도 포함하는 부정업자 숙정공작에 따라 간도에서 延吉·汪淸·和龍 등 3현의 반도인 부정업자 가운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2백여명을 귀농시켜 갱생의 길을 도모하도록 간도지방숙정위원회에서 만선척식에서 운영하는 집단부락에 입식시키기로 하고 지난 11월 15일에 圖佳線[77]의 春陽에서 13킬로 떨어진 大梨樹溝집단부락으로 이송하여 만선척식에 인계되었다.
>
> 수용자는 54호 2백4명으로 그들은 처음에 매우 부자유한 지방에 수용되는 것에 내심 불안해하였으나 와서 본즉 철도에서 그다지 멀지 않고 가까이에 부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작지는 비옥하고 거기에다가 땔나무는 가까이에 풍부하며 주택은 새로 지었고, 비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토담이 구축되어 있으며, 구내에 우물이 5개가 있는데 어디라도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급수의 편리를 꾀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

---

73) 차광수,「현경준의 유맹 연구」, p. 407.
74) 차광수,『현경준연구』, p. 106.
75) 이영미, 앞의 논문, pp. 77-78.
76) 서은주, 앞의 논문, p. 251.
77) 1935년 7월에 개통된 도문-목단강-가목사를 잇는 철도.

지 모든 설비를 구비하여 매우 만족해한다. 이렇게 된 이상 日滿 당국은 함께 만선척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자력갱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은 의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기록한 부정업자를 수용한 大梨樹溝集團部落 1만 2천평으로 백호를 수용할 수 있는 부락이며, 농경지는 6백상(晌)이고, 또 동부락에는 보도처사무소, 회의실, 경찰분주소 등 여러 기관이 있으며, 구내 중앙에는 大梨樹溝神社가 제사를 지내는 등 유감없음을 기하여 완전히 이상적 집단부락이다.[78]

위의 기사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리수구집단부락은 만주국과 일제의 관할 하에 있었으나 만선척식회사가 운영하는 부락이었다는 것, 대리수구마을은 아편중독자를 포함하는 부정업자의 숙정공작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는 것, 주민 2백여 명은 모두 '延吉·汪淸·和龍' 등 3현의 '반도인 부정업자' 가운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입식의 표면적 이유는 갱생이지만, 부락 안에 6백상(약 18만평)의 농경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선척식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이익 창출을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갱생을 위해 별도로 보도처사무소, 경찰분주소 등을 설치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집단부락'으로 선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부정업자들이 개전을 함과 동시에 그들은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맹」에서 공동농장[79]을 설치한 것과 유관하다.

그리고 집단부락이 갖는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집단부

78) 「何不自由なき設備に大喜びの歸還者達, "獻身努力更生の道を拓く"と - 滿鮮拓の大梨樹溝集團部落」, 『間島新報』, 1937. 11. 20.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매일신보』, 1937년 11월 25일자에 「大梨樹溝집단부락에 부정업자이식 수용-모도들 감격하야 정업에 착수 滿洲同胞漸明郎化」란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79) 공동농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경훈의 앞의 논문 pp. 276-279를 참조할 것.

락 설치가 “유랑하던 한인들을 규합하여 치안의 안정을 도모하고, 만주국의 지방통제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한 특수집거구역”이었으며, “강제성 · 수탈성 ·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부락의 설치가 표면적으로는 한인의 귀농을 내세우면서 항일무장투쟁세력의 탄압을 염두에 둔 포석”[80]이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단 한 명이라도 조선인 개선자들을 더 만들어야 그들을 충량한 천황의 신민으로 호명하고, 장차 징병이나 징용의 이름으로 차출하여 그들을 성전(聖戰)의 맨 앞자리에 인간방패로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4. 안과 밖의 서사 : 유랑민(流氓)의 안주와 결핍 서사

염상섭이 쓴, 현경준의 「유맹」이 다시 실린 『싹트는 대지』의 서문[81]을 읽어보면 두 가지 시선이 겹쳐 있다. 하나는 간도이민개척사적 시선이며, 다른 하나는 국책문학적 시선이다. 그런데 염상섭의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싹트는 대지』에 수록된 작품들이 ‘신만주의 협화정신을 체득한 국민문학까지 전개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대륙문학 개척자의 문학의 특징’과 ‘신선미, 신생면’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으나 전자 쪽에 치우친 감이 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책문학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민개척사적 시선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소설집에 현경준의 「유맹」이 실려 있다. 굳이 염상섭의 말을 인용한 것은 현경준의 소설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80) 유필규, 앞의 논문, p. 375.
81) 염상섭, 「서」, 신영철 편, 『싹트는 대지』, 만선일보사출판부, 1941, pp. 2-3.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즉 국책문학적 성격을 논하는 자리에서도 만주이민개척사적 시선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시선이 교차하면서 빚어내는 무늬를 정교하게 살펴야 현경준의 소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망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다.

오카다 히데키(岡田英樹)는 「유맹」을 두고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흐르는 가운데, 건국이념의 환상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현실생활에 밀착한 문학, 혹은 감성 그 자체에 충실한 문학을 추구하는 자세가 하나의 저항체(抵抗體)로서 기능했던 실태"[82]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오카다의 평가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유맹」에는 개전의 방식(명우)과 허무 혹은 자멸의 방식(규선)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방식에 무게를 둔 논자들은 국책문학으로, 후자의 방식에 무게를 둔 논자들은 저항에 무게를 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항의 방식이 온전하려면 '명우'의 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무와 자멸은 결코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협력도 저항도 아닌 제3의 방식이 존재할 가능성을 현경준의 「유맹」에서 찾아보려 한다.

우선 『광업조선』의 「유맹」과 『인문평론』의 「유맹」(『싹트는 대지』 재수록)이 전혀 다른 내용의 작품인데도 이미 발표한 적이 있는 소설명을 현경준이 그대로 사용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요점은 '제목'에 있다. 즉 '유맹'의 삶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인생』과 『마음의 금선』으로 재형상화 되는 것이다. '유맹(流氓)'은 유랑민, 즉 디아스포라를 의미한다. 유맹은 본토의 삶과는 전혀 이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살아남기 위해 그들만의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구축해 가야 했다.

---

82)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p. 27.

그런데 집단부락은 유맹들이 지향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들을 가두려한 사람들이 강요한 삶의 방식이다. 비록 유맹의 삶이 비참하고 비도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들은 울타리 밖에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광업조선』의 「유맹」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악다구니 같은 삶 속에서도 건강한 생명력은 싹트고 있었다.[83] 감시와 처벌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생산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제도적 중심은 없다. 환경은 그것을 변주하거나 약화하거나 무화시킨다. 『광업조선』의 '유맹'이 흘러들어간 도문(圖們)에서는 그들의 리그가 있었다. 그것이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삶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리그였다. 그것이 제도적 중심이었다. 비난 받을 인간의 삶일지라도 엔트로피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과 다르지 않겠는가? 『광업조선』의 「유맹」이 그려내고 싶은 세계가 바로 그러한 세계였다. 자정의 능력에 의한 자기 개선 말이다. 그런데 『인문평론』판 「유맹」은 달랐다. 그들은 갇혀 있고, 그럼으로써 죽어간다. '옛 꿈'의 회복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경준이 「유맹」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찬찬히 살펴보자.[84]

현경준은 이 소설이 보고문임을 소설 들머리에서 밝히고 있다.[85] 보고문을 쓰기 위해 방문한 곳은 앞서 밝혔듯이 '대리수구

83) 주인공 '병구'는 '영도'가 만주로 이주하려는 조선인에게 사기를 친 것을 알자, 그 조선인들을 찾아가 사기 당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그저 준다. 미안함과 함께. 그리고 영구를 찾아내 그를 응징한다. '병구'에게는 일종의 게임의 룰이 있었다. 비록 법 바깥의 삶을 살아가는 범죄인이지만 동족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으며, 이는 '병구'의 건강성과 자생성을 의미한다. 어쩔 수 없이 유맹이 되어 범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를 그렇게 내몬 세계에 대한 범죄이지 동족에 대한 범죄는 아닌 것이다.

84) 이하 언급되는 「유맹」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인문평론』판을 의미한다.

(大梨樹溝)집단부락', 방문일은 1939년 8월 13일, 마을이 건설된 지 약 2년만의 일이다. 그런데 「유맹」에 앞서 발표한 방문기 「중독자의 말」에는 신문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가 있다.

> 이 부락은 재작년 치외법권폐지시 검거한 부정업자(밀수업자), 사기횡령범, 중독자 등을 전만(全滿) 4개소에 나누어 설정한 부락 중의 하나인데, 그 중 다부분은 아편중독자들이다.(중략)
>
>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중독자다.
>
> **이 중독자 속에는 상당한 인테리가 있는 것으로서 그들의 과거를 뒤져보면, 정치운동자, 예술가, 교육자들도 있다한다.(보도소 소장은 극력 감추지만)**
>
> 한때는 혁혁만 희망으로 명일을 바라보던 그들이다. 중도에서 사회의 밑 구렁텅이에 떨어져 나려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언제든지 그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질 않는다. 마는 현실은 너무도 차고 기억 속의 환영과는 너무도 엄청난다.
>
> **그 괴로운 현재를 망각하고 잠시라도 사라진 옛 길을 더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가?**
>
> **그 속에는 옛날의 정열이 있고, 애인이 있고, 예술이 있고,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있다.**
>
> **그 화려한 옛 꿈을 더듬는 그들의 심사를 나는 잘 이해한다.**
>
>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후 점차 그들의 심사를 헤아려 보기 위해 마력을 몸소 빌어보았던 것이 아닌가?(중략)
>
> 중독자들은 누른 연기 속에 꿈을 그리며 애절히도 웨치는 것이다.
>
> 「대체 사람이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가?」
>
> **그들에게서 「명일」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무리한 일이냐?**
>
> **그들에게는 과거밖엔 없다.**

---

85)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은 '작자의 말'로 부연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이것은 한 개의 보고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작자는 이것을 제1회의 보고로 하고 앞으로 몇 차례고 이 부락의 소생상황을 보고하려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여 둔다."(「유맹」, p. 108.)

그 찬란한 과거. (중략)

찾어간 행인의 무심한 그 얼굴을 원망스레 쳐다보는 그 속에서 나는 「영원의 저주」를 엿보았다.

보도당국의 적극적 보도에 의해 옛날의 악습은 차츰 줄어간다 한다.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서 옛 꿈을 그리는 그 애절한 향수의 심사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을가?

오늘도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의 심중을 머리속에 그려가며 내 사라져간 옛 꿈을 회상하고 있다.(강조: 인용자)[86]

위 인용에는 부정업자(밀수업자), 사기횡령범, 중독자 등 여러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중 작가의 초점은 중독자들에게 쏠린다. '보도소장은 극력 감추지만' 그 가운데 '정치운동자, 예술가,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경준은 이들이 내일을 꿈꾸는 대신 사라져간 옛꿈을 회상하고 있다고 기록한다. 이 기록에는 숨겨진 코드가 있다. 보도당국의 말에 따르면 옛날의 악습은 차츰 줄어간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서 「명일」을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중독자들의 애절한 심사를 뿌리 채 뽑아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현경준은 예단하고 있다. 이는 옛꿈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들의 심중을 머리속에 그려가며 내 사라져간 옛 꿈을 회상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라져간 현경준의 '옛꿈'은 무엇일까? 소설 속의 인물들의 '옛꿈'이 '내 사라져간 옛꿈'의 치환이라면 현경준이 「유맹」에서 그리고자 한 것은 '대리수구집단부락'에 갇혀 사는 유맹들의 입을 빌어 한 자기 진술인 셈이다.

그런데 현경준의 옛꿈의 내용은 그의 초기 소설들에서 잘 드러난다. 그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명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87]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의

86) 현경준, 「중독자의 말」, 『문장』, 1939. 11, pp. 190-191.

87)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은주의 앞의 논문 pp. 236-246을 참고할 것.

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88] 적어도 현경준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주인공들을 소설적 장치로 배치하여 오늘을 견디는 방식을 제시하는 수법을 즐겨 사용하였던 것이며, 그것은 현경준이 내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는 현경준이 주의자들을 전면에 내세워 '명일'을 꿈꾸는 '이념적 이상주의자'[89]였음의 좋은 증거이다. 하지만 「유맹」에서는 오히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그 중심에 중독자들이 있다.

'성룡'과 '문삼'이 보도소를 탈출한 다음날 보도소에 일제 검문이 시행되고 규정을 어긴 피검자들에게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나레이터는 "그들은 일체를 망각하여 버린 표정으로 단장의 말에는 귀도 기우리지 않고 얼빠진 양을 하고 앉아있다. 그중에서도 중독자들이 더하다"[90]라고 기술되어 있다. 유독 '중독자'들을 강조하는 것은 현경준의 의도이다. 「유맹」의 초점은 바로 중독자에게 쏠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맹」 속에 숨겨져 있는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독자'와 그들을 가두고 있는 집단부락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소설에는 집단부락이 건설된 이유와 중독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부락이 건설된 것은 팔개월전 소화십이년-만주국의 년호로는 강덕(康德) 사년 십일월××일[91]이니까 바로 그 역사적 치외법권 철폐[92] 이

88) 표언복, 「현경준의 초기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43, 2010, pp. 223~244를 참고할 것.

89) 위의 논문, p. 244.

90) 『유맹』, 『인문평론』 1940년 7월호, p. 115.

91) 부락이 건설된 시점이 『간도신보』나 『매일신보』의 기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92) 만주국에서의 치외법권 철폐는 1937년 12월 2일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후다.

전반적으로 일제히 검거한 부정업자와 중독자들을 영사관(領事館) 경찰서의 손을 거쳐서 전만 오개소에 배치한 다음, 집단부락을 조직하고, 빛을 읽은 그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처주려는 그것은 결코 앉아서 따온 과일먹듯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극도로 락오된 폐인들과, 극단의 리기주의의 전형(典型)인 부정업자들과, 양심과 의리는 벌서 한 옛날에 매장하여버린 사기, 도박, 횡령범등-사회의 밑구덩은 헤매어볼 때로 본 그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시금 그 밑구렁텅에서 건저내 보려는 설게가 세워졌을 때, 그 무모한 계획에 당국에서도 일부는 극력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초지를 일관시켜서 착수했던 것이다.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좋다.

신흥국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건저내서 바른 국민을 맨들려고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다.

더구나 그 빛을 잃고 밑구렁에서 헤매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아까운 것이 있다.

그 아까운 보물 때문에 위정당국도 번연히 무모에 가까운 일인줄 알면서도 과감하게 실지시험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서, 그것은 달음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인재었다.

비록 락오는 되었을까망정 한때는 모두 다 리상을 품고 혁혁한 앞날을 바라고 매진하던 그들이다.

그들속에는 기술자도 있고 정치운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종교가도 있고, 의술가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각칭을 망라하여 있다.[93] (강조 : 인용자)

보도소 사업은 '빛나는 만주국 건설사업'[94]의 일환으로, 보도소를 건설한 궁극의 이유는 '바른 국민'을 만들기 위함이다. 바른 국

93) 「유맹」, 7월호, pp. 123-124.

94) 「間島琿春兩地에 移住保導所設置 兩地民會의 聯合事業으로」, 『매일신보』, 1933. 4. 8.

민은 순종하는 국민을 의미할 것이다. 순종하는 국민은 '순종하는 신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즉,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95]를 만드는 것이 보도소의 소임이었다. 그리고 순종하는 신체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면밀한 통제와 신체의 복종,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규율(discipline)'[96]과 감시에 의해 가능하다. 규율의 장치에서 폐쇄는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수의 인간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술'[97]이 규율이라고 할 때, 보도소는 규율을 실천하기에 효과적인 공간이다. 실제로 보도소 안에서는 감금, 폭행, 감시 등 다양한 방식의 처벌이 행해지지만 그것은 "신흥국가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저내서 바른 국민을 맨들려고 이를 악물고" 보도소 사업을 펼치는 자들에게 정당화된다.

그런데 조선인 '중독자=정치운동자, 예술가, 교육자'는 중일전쟁 이후 전향의 시대를 맞아 양산한 사회주의=아편, 사회주의자=아편중독자라는 관념의 범주에 포섭된다. 그리고 오족협화의 땅에서 제국의 일부로 포섭되어 마땅한 천황의 신민이기도 했다. 비록 그들이 만주국에서 범죄자, 공산분자, 민족 박해와 비적의 노림감으로 매도되고 있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하위범주의 일본인이었던 것이다.[98] 제국의 시스템, 제국의 생존권 내에서 비록 중독자들이 '사회의 밑구렁텅이'를 사는 제국의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그들은 '명일'의 '오색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 동북정부가 정책적으로 한인의 토지 소유와 임차를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어려웠"고, "이들 빈곤한 이민자들에게는 다른

95) 미셸 푸코, 오생근 역, 앞의 책, p. 205.
96) 위의 책, p. 206.
97) 위의 책, p. 318.
98)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출판부, 1999, pp. 164-167 참조.

기회가 부족하여 도시와, 남만주 및 中東鐵道 주변지역에서 모르핀과 헤로인의 불법 판매에 종사하게"[99]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그들의 화려한 꿈을 제국에게 공납하였다 하더라도 '영원의 저주'를 발산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제국은 주어진 것이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갇혔고, 통제되었고, '극도로 락오된 폐인들과, 극단의 리기주의의 전형(典型)'으로 호명되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왕도락토(王道樂土)를 건설하려는 만주국이 아니고는 꿈에두 상상할 수 없는 고마운 혜택"[100]으로 간주되고,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 '무모한 계획'은 거침없었다. 그런 당국의 '고마운 혜택'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과 고락을 가치하며 여러분의 그 쓰라린 과거를, 여러분의 기억에서 흔적없이 씻어버리구 새로운 광명의 길을 밟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몰라주십니다. 아니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체 합니다.
>
> (중략)
>
> 그러나 그것을 듣고 있는 군중의 표정은 너무나 평범하다.
>
> 그들은 제각금 제멋대로 다리를 틀고앉아서는 혹은 담뱃대를 뻐금뻐금 빨기도 하고 혹은 곁사람과 숙은거리기도 하고 혹은 먼 산봉오리를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며, 그야말로 소장의 설교에는 오불관심이라는 격이다.[101]

'떨리기까지 하며 울음조로 변해가는' 소장의 말은 '여러분'에게

---

99) *Frederic T. Merril, Japan and the opium Menace,* 박강, 「'만주국'의 아편마약 밀매대책과 재만 한인」,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연구』 19, 2006, p. 463 재인용.

100) 「유맹」, 7월호, p. 117.

101) 위의 소설, pp. 117-118.

닿기도 전에 산산이 부서져 허공에서 사라진다. 「유맹」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의 <엇박자놀음>은 교묘하게 만주국의 허상을 꼬집는 기제로 작동한다. 왕도낙토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현경준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소장류>가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던 왕도낙토에 '여러분'은 '오불관심'이었다. '여러분'에게 왕도낙토는 <소장류>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이다.

한편, '낙오된 폐인'이 갇힌 집단부락은 <안>과 <밖>으로 구분된다. <안>은 차별된 공간이며, 전복에 의하거나 <밖>의 세계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속될 밖에 없는 유형(流刑)의 곳이다. <밖>은 일덕일심의 큰 강물이 흐르는 왕도낙토의 곳으로 장차 <안>의 '폐인'이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다. '모두 다 리상을 품고 혁혁한 앞날을 바라고 매진하던' <안>의 '그들'이 한때 몸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도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은 결여의 공간이며, <밖>은 풍요의 공간으로 구획된다.

그런데 문제는 <안>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왕도낙토'로의 탈주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왕도낙토라는 구호 그 너머에서 스스로 자생하기를 꿈꾸고 있지, 현재 <밖>으로 규정된 그 공간에 섞여 들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눈에는 <밖>도 결여의 공간으로 비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다음의 두 인용은 단적으로 보여준다.

> 중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오색 무지개의 그 꿈이 사라질 줄을 모르고, 기회만 있으면, 마의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악착한 환경은 자꾸만 그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 외부와의 비밀연락 때문에 당국은 가장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이다.
>
> 또 한 가지 두통꺼리는 밀수업자들의 일확천금의 꿈이다.[102]

---

102) 위의 소설, p. 124.

「그럼 그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게」

「얼마든지 하지요. 현재 지금 누구니누구니하며 돈푼식이나 지니구 뽐내는 그들 중, 자초부터 한푼 두푼씩 바른 노릇을 해서 모은 것을 가지구 부자라는 이름을 띈 자가 그래 몇이나 됩니까? 전부가 일확천금을 한 것이라구 해두 틀리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업을 해서 얻은 것이야 아니지」

「천만에 말슴입니다. 그들의 사업은 전부가 밀수가 아니면 부로카 노릇이었지요. 그두 대낮에 공공연하게 한축이랍니다. 멀리를 생각지 마시구 전번에두 목단강(牧丹江)에서 소장님을 찾아왔지만, 그 무슨 회사사장인지한 그 양반이 자초에는 무슨 업을 해서 그렇게 돈을 쥐였는지 아십니까? 자초에는 도문(圖們)개척시에 밀수를 굉장히 해서 돈푼이나 쥐였으니까 아쥐지금 회사두 그때에 얻은 것으루 된 것임에 틀림없겠지요.」[103]

나레이션은 중독자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제시한다. <안>에서 꾸는 '오색무지개 꿈'과 '일확천금의 꿈'은 죄악으로 규정되며, 모든 기회와 욕망은 박탈된다. 그러나 '바깥'에서 꾸는 동일한 꿈은 기회이며 선이고, <안>의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믿거나 그리 정의한다. 동일한 방탕성에 빠져 있으면서도 <밖>의 시선은 <안>을 죄악으로 바라보는 눈을 거두지 않는다. <밖>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선이 그릇된 것임에도, 자신의 것을 위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외면한다.

소장은 <안>에서 꾸는 일확천금의 꿈이 왕도낙토의 땅, 만주국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강변하지만 <안>의 사람 '병철'은 동의하지 않는다. '병철'에게 <안>과 <밖>은 구분되지 않는다. 등질의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 <안>의 사람들은 안주를 위해 <밖>으로 탈주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탈주를 감행하는 때는 <밖>에서 정해놓

103) 위의 소설, p. 119.

은 규율-부정업 금지-에 정면충돌할 때뿐이다. <안>의 사람들은 그들의 탈주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밖>의 사람들은 <밖>에서 행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인 것을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왕도낙토라는 <밖>은 모순덩어리이다.

왕도낙토를 꿈꾸는 만주국의 정책은 여기서 그 실체가 드러난다. 팽팽히 긴장감 도는 '병철'의 한 마디는 부정업자나 중독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 짓는 것이 무의미함을 암시한다. 처음부터 왕도낙토를 표방한 만주국의 슬로건은 '비현실적'이었다. 소장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정업자의 행태나 '내 몸을 망치구 국가와 사회를 망치는 악몽'에 사로잡힌 중독자의 삶이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부정업자의 입을 통해 소장의 말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비꼬는 아이러니가 만주국의 오늘을 바라보는 현경준의 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나 규율은 '낙오된 폐인'을 통제하기에 버겁다. 그들은 집단부락의 감시와 규율에 의해 통제받지만, 스스로 그 통제 바깥에 놓여 있다. 규율은 그들을 강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규율은 자주 미끄러진다. 왕도낙토를 향한 "색달은 륜리(倫理)와 도덕(道德)과 조직(組織) 아래에서 피투성이의 싸움은 쉴 새없이 게속되어"[104] 가지만 왕도낙토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었고, 형체가 일그러져 보이는 깨진 거울이었다. 현경준이 고발하려는 것은 개심자 '명우'의 시선에 가려진 바로 이 미끄러짐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경준의 이런 고발정신은 다음의 인용에서 그 빛을 더 발한다.

> 그는 명우의 앞에 와서 제몸을 내던지듯 철썩 잡바지며
> 「혼자서 멀하는가?」
> 하고 명우의 얼굴을 뻔-이 드려다본다. 명우는 그말에는 대답하지

104) 위의 소설, p. 125.

않고

「일하기 재미나는가」 하고 딴말을 묻는다.

「재미가 나서 큰일 났네. 제-길할, 이놈에 세상 한 번 벌컥 뒤짚어지는 법은 없나.」

「뒤짚어지면 별 수 있을 줄 아는가?」

「별 수는 없지만 속은 한 번 시언이 풀릴 것 같어.」

「객적은 소릴 말게. 골수까지 썩은 놈들에게 시언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시언스럽겠는가?」

「그래도 난 한 번 그런 걸 보구 죽었으면 한이 없을 것 같네.」

한때는 정치운동의 선봉에 나서서 불타는 정열로 날뛰었다는 이 중독자는 지금도 옛날의 그 꿈은 잊을 수가 없는 듯 머어니 창공을 바라보면 저 혼자 중얼거린다.

「두 번두 싫다. 단 한 번만이라두.」[105] (강조: 인용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규선'은 현재의 삶, 즉 보도소의 생활과 그것이 속해 있는 만주국, 나아가 만주국의 통치 행위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만척의 행태에 대한 전복을 꿈꾼다. 아울러 그가 과거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거부이자 현실 도피의 한 수단이다. 도피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현실 외면인 것이다.

그런데 현경준은 반복적으로 아편중독자들의 그릇된 삶의 방식을 재현한다. 이는 아편중독자들의 현재적 삶을 비판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내부에 상징 코드도 있다. 즉 그들의 입을 통해 현재적 삶에 대한 울분을 토로케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의 '희망'을 되새김질함으로써 결국 현재의 삶, 즉 보도소가 구획하는 삶의 방식과 갱생의 취지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형태를 취한다.

팔월을 잡자 며칠 안 되어 부락에서는 만척(滿拓)의 제오회째의 대

105) 「유맹」, 『인문평론』 8월호, p. 149.

부배급(貸付配給)을 받게 되었다. 그 때문에 둔장(屯長)은 현에 갔다오고, 이튿날은 보도소 앞마당에서 진종일 양미배급에 눈코 뜰 새 없이 밥비 지났다.

부락민들은 저마다 내켜하지 않는 얼굴로 배당된 쌀을 둘러메고 각각 제집으로 흩어져 가서는, 위선 앞으로의 예산부터 세운다. 어떻게 해서던지 이번 것을 가지고, 신곡 날때까지 견디어나가야 할텐데, 아무리 손구락을 꼽아가며 날자와 되ㅅ수를 따저보아야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래 마지막에는 손구락을 꼽아보다가 못해, 그만 역정스레 쌀푸대에다 침을 탁 뱉고는

「제-길 이러구 살면 뭘 하는가」 하며 보낼곳 없는 울분에 저 혼자 씩은거리는 것이었다. 그러고 중독자들은 그러한 쌀보다도 비록 콩알만한 것이라도 새깜안 그놈을 누는 편이 얼마나 낫겠는가고, 몇번이고 군침을 삼켜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밤이면 자위단의 경비망을 교묘히 뚫어 외부와 연락을 취해서는 배급된 쌀을 가정의 눈을 속혀가며 아편과 바꾸어 들이는 것이다.[106]

위의 인용에는 보도소의 간접적 통치 방식에 대한 정보가 있다. 즉, 만주국에 의해 배급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만척에 의해 배급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보도소가 일제의 통제 하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 '명우'는 보도소소장의 회유-규선을 개심시켜 달라는 부탁, 순녀와의 결혼, 어머니 초청-를 통해 옛꿈(화가로서의 꿈)을 회복해간다. 하지만 보도소 소장이 부탁한 그의 친구인 '규선'의 개심에는 실패한다. 이것은 현경준이 '규선'과 '명우'라는 인물을 통해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 한 노력의 결과이다. 즉, 보도소의 임무가 만주국의 슬로건인 일덕일심 아래 왕도낙토를 건설하는데 일익하는 것이라면, 보도소를 통해 '명우'처럼 개심하는 자도 있겠지만 아내의 자살까지 예측하면서도 옛꿈을 지울 수 없다는 '규선'과 같이 원천적으로 개

106) 위의 소설, p. 155.

심하지 않는 인물도 있음을 그려줬다. 이것은 만주국의 슬로건에 균열을 야기하는 것이며, 종국에는 위성국가 만주국을 거중 조정하던 일본의 통치 책략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 「머? 개심?」
> 규선이는 쓸쓸하게 웃은 다음
> 「그건 그러이. 허지만 여보게 명우. 저로서도 알지 못할 건 제 맘일세.」
> 개심개심하지만 나한텐 그게 재일 문젤세. 자네는 다행히 잃었던 옛꿈을 다시 찾아서 앞날에 희망을 걸게 되었다지만, 나한테야 뭐가 있단 말인가? 앞날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 나로서는 결국 과거의 꿈밖에야 회상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 한포 먹으면 자욱-히 흐려드는 머릿속에 그림같이 떠올르는 그 잃어버린 꿈-. 자네 머리속에도 그 기억은 잘 남아있겠지?」
> 명우는 아무말도 못하고 창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 「만약에 나한테서 그것마저 빼앗어 버린다면, 난 벌써 내손으루 이 헛깍대기만 남은 송장을 처치해 버린지두 오랬겠네. 그러니까, 명우. 자네두 내 안해 모양으로 부질없는 충고는 일체 말어주게. 간절히 부탁하네.」[107]

'명우'의 개심 권유에 아랑곳없이 '규선'이 개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모습은 변명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선'을 개심하려는 '명우'에게 힐난하는 모습처럼 비친다. '규선'과 '명우'의 대립 관계는 현경준이 이 소설에서 보여주려고 한 중요한 해석 지점이다. <아편쟁이> '규선'의 마음은 특수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김남천의 소설 「요지경」에도 그와 유사한 <마음>이 토로된다.

---

107) 위의 소설, p. 171.

> 그보다 더 중한 것, 그러기 때문에 그보다 더 두려운 것, 더 슲은 것, 더 쓰라린 것, 그것은 살떵어리가 씩어가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공포가 한 거름 물러설 때 슲음과 한 가지로 왈칵 달려들어 비로소 경호의 전 몸뚱이를 부뜨러버린 「마음」의 문제였다. 마음의 성곽이 문허저가는 것, 이것을 것잡을랴는 노력이 없어지는 것을 눈앞에 볼 때에 경호는 비로소 제가 무었인가를 주시하게 되는 것이었다.[108]

규선은 <과거를 살고 있었다.> 그는 만주국이나 보도소에서 미래를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과거의 사람이었고, 미래는 그에게 속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그는 여전히 과거를 유랑하는 유맹이었다. 현재와 미래는 그가 유랑할 곳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규선을 포함한 중독자들이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고, 오늘을 사는 이유였지만 불가능한 꿈이었다. 그들이 있을 곳은 만주도, 보도소도 아니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만 그들은 존재했다. 현실에서 그들은 수도 없이 절망했고, 부서졌지만,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과거였다. 그것을 회억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마약을 찾았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들은 오늘을 거부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공간,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고, 마약을 버리지 못했다. 지배자가 만든 헤테로토피아에서 탈주하여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질 수 있는 자율적, 자생적 환상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를 소망했다.

이런 상황을 최명익은, “물론 아편을 먹는 이유랄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병, 빈곤, 고독, 절망, 자포자기, 이런 이유랄가—. 핑계랄가—. 아마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나 동기랄 것은 「자포자기」

108) 김남천, 「요지경」, 『조광』, 1938. 2, p. 259.

－이겠지요”[109]라고 묘사한 바 있다. ‘자기포기’는 왕도낙토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아프다. 그 아픔은 ‘식민지인의 역사적 절망과 주체의 몰락을 인식하고 감각’[110]한 결과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편중독자나 부정업자의 개조는 인간의 보편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리 되어야할 일이다. 그러나 개조를 만주국의 일덕일심, 왕도낙토와 동일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제국에 포섭되지 않는 모든 것을 아편중독자 및 범죄자로 동일시’[111]하려는 제국의 기획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경준의 「유맹」에서 개조는 연기되었고, 왕도낙토는 미끄러졌다. 그리고 일덕일심은 거부되었고, 오족협화는 균열되었다. 미끄러짐과 균열의 모습이 현경준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아니고 당시 만연하고 있던 사회문제였다는 사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내객적 태도를 청산하기에 노력하여야겠고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유동적이요 무근거한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 개의 기본활동으로 영주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니될 줄 믿는 바이다.[112]

> 우리에게 애향심, 귀향심은 강렬하지만 조향심(造鄕心)은 부족함을 느낀다.(중략) 만주 백만의 동포가 이주 영농하거니와 우리는 그들의 입에서 언제나 “돈을 모아 고향 가겠다”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돈푼이나 벌면 고향 가지……” 하는 하루살이 생각을 버리자.[113]

---

109) 최명익, 「심문」, 『문장』 1939. 6, p. 26.
110) 이경훈, 앞의 논문, pp. 267-268.
111) 위의 글, p. 282.
112) 『만선일보』, 1940. 2. 17.
113) 『만선일보』, 1940. 3. 29.

당시 '자정운동'이니 '영주운동', '조향심(造鄕心)'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로 시사적이다. 왜냐하면 일덕일심 아래 오족이 협화하여 왕도낙토를 건설하자고 외치던 만주국의 구호가 겉돌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겉도는 실체를 보고 현경준은 자신의 방식으로 왕도낙토를 그렸고, 「유맹」을 낳았다. 옛꿈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왕도낙토라는 사실을 현경준은 자포자기와 허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려보여 줬다. 복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였지만, 옛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 도전의 정신을 개심하는 '명우'가 숨겨주었다. 현경준은 저항하지 않았으나, 왕도낙토를 믿지도 않았다. 그것이 제3의 방식이고, 현경준이 당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글쓰기 방식이었다.

5. 결론

지금까지 현경준의 「유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2장에서는 내선일체, 만선일여의 구호 속에 감춰진 차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오족협화론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만주 정책 속에서 조선인의 위치나 국적, 혹은 민족적(籍)이 어떻게 규정되고 취급되었는지를 통해 징병을 위한 내선일체론의 본질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현경준의 「유맹」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 사이에서 불거진 오해의 몇 가지를 정리하였다. 『광업조선』판과 『인문평론』판의 「유맹」은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별개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인문평론』 1940년 7월호와 8월호에 「유맹」이 실린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리수구집단부락'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간도신보』와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 실재 존재한 집단부락

임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만주라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 좁게는 보도소라는 헤테로토피아적 집단부락 서사를 통해 현경준이 「유맹」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았다. 헤테로토피아는 일종의 환상의 공간이다. 실재하지만 규율과 감시에 의해 통제되고 동시에 환상을 선전한다. 헤테로토피아는 하나의 다른 장소를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상상적 허구일 뿐이다. 현경준의 「유맹」은 두 가지 의미에서의 헤테로토피아를 상정하고 있다. 하나는 지배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지는 헤테로토피아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자, 즉 중독자들이 소망하는 헤테로토피아이다. 전자가 감시와 규율에 의해 통제되고, 갱생과 개심이라는 미명으로 중독자들을 가두는 공간이라면 후자는 그런 공간이 가지고 있는 허구와 거짓을 폭로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즉 지배자의 생각 그 너머에서 자율과 자생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이다. 그러나 전자건 후자건 현실과 마주하면 둘 다 환상이긴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수용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며, 후자는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헤테로토피아는 "거기에 감으로써 완전히 다른 체험,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공간"[114]을 의미하지만 현경준의 「유맹」에서 보도소라는 헤테로토피아는 '다른 체험'을 경험하지만 '다른 의식'을 갖게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 점이 「유맹」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도소 <밖>의 공간도 보도소 <안>의 공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은 왕도낙토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주국, 나아가서는 일제의 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혹은 외면받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현경준의 「유맹」이 거둔 성가이다. 저항

114) 야마무로 신이치저, 윤대석 역,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p. 18.

과 협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수렴되지 않고 근대적 공간개념, 즉 공간의 균질화에서 이탈하여 전혀 다른 공간을 소망하는 무리들의 존재는 이 소설의 가치를 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간도신보』『동아일보』『만선일보』『매일신보』『문장』『신시대』『인문평론』『조광』『조선중앙일보』『총동원』『현경준, 연세국학총서 73-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9』

2. 논문

權立,「光復以前 中國居住 韓民族의 法的地位에 대하여」, 汕耘學術文化財團編,『汕耘史學』제4집, 1990, pp. 39-54.

김장선,「위만주국 문학장에서의 변두리문학의 이중성 연구-「돌아오는 인생」과 「신생」을 중심으로」, 용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인문사회논총』11집, 2004, pp. 179-188.

남춘애,「해방 전 중국 유이민 소설에 나타난 아편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한국문학이론과 비평』37호, 2007, pp. 399-418.

리광일,「현경준의 소설문학에 대한 리해」,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허경진·허휘훈·채미화 주편,『현경준, 연세국학총서 73-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9』, 보고사, 2006, p. 26.

박강, 「'만주국'의 아편마약 밀매대책과 재만 한인」, 한중인문학회,『한중인문연구』19, 2006, pp. 460-487.

서은주,「만주국 재현 서사의 딜레마 혹은 해석의 난경」, 한국근대문학회,『한국근대문학연구』22집, 2010, pp. 231-261.

신민영, 「타이완 소설 「道」에 나타난 이중 억압 기제와 식민지인의 자기 정체성 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9호, 2013, pp. 319-346.

신정은, 「현경준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과 대응양상 연구」, 국제한인문학회, 『국제한인문학연구』 8집, 2011, pp. 111-139.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 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연구』 36집, 2008, pp. 87-110.

유필규, 「1930~40년대 연변지역 한인 '集團部落'의 성격」, 백산학회, 『백산학보』 81, 2008, pp. 366-407.

윤휘탁, 「<만주국>의 '2등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회, 『역사학보』 169집, 2001, pp. 139-171.

윤휘탁, 「'만주국'」농촌의 사회상 - '복합민족구성체'의 시각에서 본 식민지 농촌의 단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7호, 2004, pp. 187-238.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間SAI』 4집, 2008, pp. 263-289.

이명재, 「식민지시대 망명문단에 관한 연구 - 광복 이전의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17집, 1990, pp. 71-99.

이선옥,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 갈등과 친일의 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pp. 93-116.

이영미, 「재만조선인의 이주와 정주 과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문화연구』 31집, 2009, pp. 57-91.

이정순, 「조선과 만주는 한 집안 - 남총독 만주국 방문기」, 『新時代』 제6집, 1941. 5, p. 26.

일철 등, 「중국 조선민족의 해방전 소설문학에 대하여」,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2』, 민족출판사, 1977, p. 11.

임성모,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 '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회, 『역사학보』 201, 2009, pp. 165-199.

장춘식, 『일제강점기 재중조선인소설연구』, 전북대 박사 논문, 2003, pp. 1-186.
전성호, 「일제하 중국 조선인 소설 연구」, 강원대 석사 논문, 1998, pp. 1-130.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17집, 2002, pp. 207-227.
차광수,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7집, 2005, pp. 405-425.
차광수, 『현경준연구』, 한림대 박사논문, 2005, pp. 1-151.
차성연,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 53집, 2009, pp. 437-456.
차희정, 「현경준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과 공간의 의미: <流氓>, <도라오는人生>, <마음의琴線>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40, 2013, pp. 21-45.
표언복, 「현경준의 초기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43, 2010, pp. 223-244.
표언복,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글쓰기 방법」,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47집, 2011, pp. 339-369.
허경,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 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연구』 3권 2호, 2011, pp. 233-267.
副島昭一,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東京:綠蔭書房, 1995, p. 151.
三谷裕美, 「滿洲國における'國語'政策」, 『東京女子大學 論集』, 1963. 3, p. 100.
西尾實, 「日本語總力戰體制の樹立」, 『日本語』 3권 1호, 1943. 1, p. 20.
御手洗辰雄, 「東亞共榮圈に於ける朝鮮の地位と實力」, 『新時代』 1941. 6, p. 116.
田中隆一, 「日帝の「滿洲國」統治と 在滿韓人問題 : 「五族協和」と「內鮮一体」の相剋」, 만주학회, 『만주연구』 1, 2004, pp. 103-108.

3. 단행본

김윤식,『한국근대소설사연구』, 을유문화사, 1986.
김재용,「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오상순,『중국조선족소설사』, 료녕민족출판사, 2000.
한석정,『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출판부, 1999.
宮田節子 저, 이형랑 역,『조선민중과「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야마무로 신이치 저, 윤대석 역,『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09.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미셸 푸코,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0.
柄谷行人,『倫理21』, 東京 : 平凡社, 2000.
御手洗辰雄,『南次郎』, 東京 : 南次郎傳記刊行會, 1957.

Heterotopia, Manchuria Viewed from the Third Eye
- Focused on Hyun Kyungjun's *Yumaeung* -

Roh, Sang-Rae

The main narrative of Hyun Kyungjun's *Yumaeung* sheds light on the criminal modification project which was implemented by Manchukuo. The novel narrates the project based on Bodoso(a guidance institute), a collective village in Manchuria. The criticism of the novel used to keep the perspectives of resistance and cooperation. This study, however, considers Bodos as heterotopia where the stories of Myungwoo and Kyusun are developed, and analyzes the spatial directionality.

When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Myungwoo, the project looks successful. There is a symbol code by which to view the standpoint of Myungwoo. This is confirmed by those who are similar to Kyusun. The spatial assessment of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Bodoso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residental space. While those living outside of Bodoso reproach the individuals living the inside for committing crimes, the insiders consider the others as the same criminals just like themselves. In contrast, there aren't any differences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to the persons like Kyusun. This is indeed smooth space. That'why those living inside couldn't escape to the outside for complacency. They dreams of the third space which is neither the inside nor the outside. Accordingly, they wouldn't give up their own old dreams.

Regulation and restrictions in this novel are too much to control the stragglers. Although they are overseen by the collective village and controlled by regulations, they put themselves beyond their control. While the regulations are equipped to suppress the persons, they open slip down. Royal road and paradise in the novel is a dream of unrealizable fantasy and a broken mirror which reflects shapes distortively. What the novelist discloses is the slip which is veiled by the eyes of a regenerator, Myungwoo.

Key words: All in one Korea-Japan(Nae-sun-il-che), Bodoso(a guidance institute), Collective village, Five-race harmony, Heterotopia, Royal road and paradise

노상래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53-810-2120
전자우편: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3월 14일 투고하여
2014년 4월 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16일 게재 확정함.